

대학구조개혁평가, 종립대 희비... 문제점은?

(喜悲)

동국대 서울캠 '최우수', 경주캠·위덕대 '우수' 받아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종립대학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최우수 등급인 A평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위덕대가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받아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떨쳤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줄어드는 학생인구에 맞춰 2022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명 줄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지난 5개월 간 일반대·전문대 등 총 298개 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D와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며 국가 보조 학자금, 장학금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동국대는 전임교원확보율, 수업관리, 학생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학생 충원율,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12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평가,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졸업생 취업률 등 6개 지표는 만점을 받았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A등급 선정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면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학다운 대학, 참사람 열린교육을 실천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기획처 관계자는 "인문계와 이공계간 융복합 연구 등을 비롯해 교양교육 전

담 학부인 다트마칼리지 신설 등이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은 위덕대도 전임교원 확보 및 교사 확보, 장학금 지급율, 취업률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위덕대는 취업률 상승을 위해 입학취업지원처 산하에 취·창업지원팀을 신설하고 'Job-Cafe'를 설치하는 등 노력으로 2014년 71.3%의 취업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영남권 4년제 중 1위, 전국 12위이다.

위덕대 기획팀 관계자는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이란 비전실현에 '명품교육, 명품취업'이란 슬로건을 걸고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취업률 등 성과위주 평가 실시 일선대학, 특수성 미반영 우려 목소리 "종교·인문학 위기 가속화"

위덕대의 경우에는 학부교육혁신단과 인성기초교육원을 학내에 설치하고 인성기초교육원 내 인성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위덕진각봉사단의 4개 학생지원센터를 뒤 상호연계활동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인문계 축소...대학 특수성 훼손 우려도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사실상 성과



위주의 평가라는 데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취업률 등 드러난 수치에 의한 평가로 인해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힘든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서울의 D대 교수는 "평가기준이 일률적인 것이 문제"라며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선도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대학 입학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받게 되어 있다. 성과 위주 평가에 학문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평가를 앞두고 각종 평가 지표 때문에 지방대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와 함께 소수정예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금강대와 같이 종립대학의 특수성이 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위등급에 포진한 대학의 상당수가 종립대학인 점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D+등급을 받은 금강대의 경우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혜택 등이 일부제한 받지만 이미 자체 전액장학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대는 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차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각 대학에 권고한 상태다. 최우수인 A등급은 자체감축 외에는 별도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분을 권고 받았다.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소급적용이 어려운 만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전문대학은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등의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2015년도 평가제도의 대학은 평균적인 7% 감축해야 한다. 권고대로 줄이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평가 및 단계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대학 한 관계자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부에서 대학을 최초로 '서열화'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 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yunbul.com

실�크로드의 석굴문화 집중 조명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태)는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동서 문화의 융화로 실�크로드의 석굴, △실�크로드의 역사와 고대 한국인, △우리 불상의 원류 동향 석굴의 불상, △오아시스의 꽃-쿠차와 키질석굴, △실�크로드 현장 답사, △우리 미술의 원류-동향 석굴의 변화, △산란한 변화의 보고-돈황 석굴의 변화, △사막에 핀 화염의 미소 베제크릭 석굴, △지하도에 어린 웅장한 세계 유럽석굴, △실�크로드의

시작과 종점 맥적산 석굴, △호수 속에 솟아있는 동서 문화 교류의 꽃 병령사 석굴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중국 실�크로드 석굴 현지 학술조사' 동참자를 모집한다. 오는 10월 15~22일 진행되는 현지 체험학습 학술조사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연구소는 "실�크로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 등 고대 문화의 수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문화의 보고"라며 "이런 신비의 고대 문화를 배우고 몸소 체험하는데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경 번역 제문제' 학술세미나

티벳대장경역경원, 10월 2일 동국대 경주 백주년기념관서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0월 2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층에서 '불교경전 번역의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티베트 경전 번역 및 디지털화가 논의된다.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성준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의 현고과 밀교문헌 비교' △이방배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티벳대장경 번역어의 선정에 관한 문제' △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시대 대장경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김호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근현대 역경의 단면-백용성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진옥 스님은 "티베트 대장경 연구는 한국 불교의 역경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티베트경전 번역과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경청하고 토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054)770-2894 노덕현 기자

北불교도연맹, 일본 내 문화재 반환 추진

평양 율리사지석탑 반환요구, 도쿄법원 조정기일 출석 추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평양에서 유래한 일본 내 문화재를 되찾고자 도쿄에서 열리는 법원 조정기일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는 8월 30일 차급철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서기장이 평양 율리사지 석탑을 되찾기 위해 9월 17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서기장은 8월 29일 방북한 문화재제자리찾기 관계자를 개성에서 만나 그간 남·북한 불교계의 공동 노력으로 북판대

침비, 조선왕조실록, 의궤, 어보 등의 문화재가 반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조불련이 일본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석탑반환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조불련은 올 2월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도움으로 율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라는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조선후기 선사상'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9월 19일 서울 법륜사에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법륜사 2층 강당에서 '조선후기 선사상과 보조선'을 주제로 제113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월

례학술대회에서는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17세기 목암회화의 화엄교학과 보조사상' △최희철 스님의 '승가교육에 끼친 지눌의 사상'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의 부루나존자 '무진장 스님' 추모행사 열린다

2주기 맞아 9월 11일 세미나·17일까지 유품전시회

'한국의 부루나 존자'로 불릴 정도로 평생 중생교화에 나섰던 무진장 스님(사진)의 입적 2주기 기념 학술세미나와 유품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은 9월 1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진장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추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의 '금강경과 무진장 스님의 불교사상',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의 '무진장 스님의 생애와 원력' 기초발제가

1부 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는 김경집 위덕대 교수의 '조계사의 지킴이 무진장 스님',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와 무진장 스님' 등이 발표된다.

이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는 무진장 스님의 유품과 근현대 포교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된다.

전시되는 유품으로는 발우 1세트(6점), 족부 1점, 주장자(소) 1점, 합장주(나무) 1점, 불자 1점, '천태사교의 신석' 친필원고 1270장, 근세한국불교사상의 연구 1책,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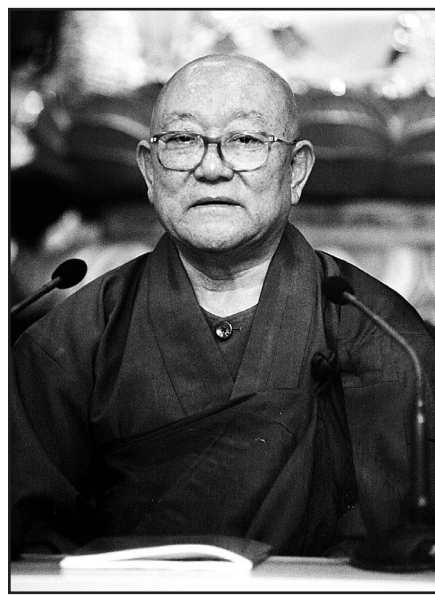
대용 향통 1점, 안경 2점, 장삼 1점 등 전체 42건 중 23건 등이다.

조계사 측은 17일 무진장 스님이 평소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육조해 금강반아비라밀경>의 봉정도 진행된다.

한편, 무진장 스님은 1971년 조계종 포교원을 창설하고, 평생을 대중포교에 바쳤으며, 무소유를 직접 실천해 '칠무(七無) 스님'으로 통했다. 무진장 스님은 1971년 조계사에 주석한 이후 다른 곳에 머문바 없이 40여년 간 상임법사로 수행과 포교에 정진했다.

이후 79세인 2010년 4월 14일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고 2013년 9월 9일 조계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